

혼신을 다해 쏘아 올린 신호탄

여성 제과 기능장 1호, 마르쉐 박연신



업계 최초 여성 제과 기능장이 탄생했다. 이번 33회 제과 기능장 시험에서는 두명의 여성 기술인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해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그 중심에 당당하게 서있는 박연신씨. 작은 체구, 마냥 좋아 보이는 인상의 그녀는 올해로 경력 30년의 베테랑 제과인이다. 박연신씨는 조선호텔, 신라호텔, 미국대사관 웨프에 이어 현재 마르쉐에 근무중이며 서울 국제빵·과자전, 하이박, 호두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이번 기능장 합격은 박연신씨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 주었다. 기능장이란 타이틀을 갖게 되니 그만큼 책임감도 강해졌고 제품에 대한 부담감도 커졌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게끔 해주는 도화선이 되어 기분이 뿌듯하다고.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후배 여성 제과인들이 같이 기뻐해 주면서 저를 보고 도전하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기능장에 도전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연신씨가 기능장 시험에 도전하게 된 것은 ‘여자도 기능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다. 32회까지 기능장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여성 제과인들이 자꾸만 시험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도전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고. 남편인 김영광 기능장과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권유가 그녀의 이러한 마음에 자신감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직장 생활과 병행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녹록치 않았다. 시험 준비를 시작하면

서 다른 일은 다 접고 회사, 집, 학원만을 오가며 준비했다. 매일같이 새벽 2시에야 집에 돌아와 겨우 세 시간 정도 잠을 청하고 출근하는 강행군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박연신씨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마음을 다잡으며 혼신의 힘을 쏟았다. 앞서 기능장 시험에 합격한 남편의 조언을 바탕으로 박연신씨는 필기와 실기, 체력 등 모든 면에서 철저히 준비했다. 자신의 실력을 시험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점을 계속해서 단련해나갔으며, 8시간이나 되는 시험 시간을 버텨내기 위해 틈틈이 운동을 통해 체력을 보강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의 외조와 주위의 도움이 없었다면 합격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자신의 노고보다는 주위 사람들에게 합격의 고마움을 전했다.

박연신씨는 많은 후배 여성 제과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기능장에 도전하기를 바란다. “일을 할 때 ‘여자라서’란 말을 듣지 않게 남보다 더 노력하고 무슨 일이든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저보다 훨씬 빨리 기능장에 도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앞으로 마르쉐 직원 교육은 물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가서 업계 후배 양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각종 수상 경력에 이번 기능장 합격까지 ‘내 인생이 지금껏 순탄했던 것은, 운이 좋아서’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박연신씨. 그러나 언제나 즐겁게 일한다는 그녀의 열정과 끝없는 노력이 이러한 운을 만들어 낸 것이라 생각한다.

(취재·김영주 / 사진·안성철)

